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4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월 23일)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사찰 홈피 '모바일化' 실무 활용교육 시급

[진단] 모바일 불교, 어디까지 왔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모바일 뱅킹' '모바일 상담' 등 모바일 시대를 맞아 사찰 홈페이지가 새롭게 변하고 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앞서 기능 활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높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8년 공개한 '2017인터넷이용실태보고서'를 보면 인터넷 접속기기 비중(복수응답) 중 스마트폰 이용은 94.1%에 달했다. 데스크톱 61.2%, 노트북 32.6%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터넷 접속 방식에서도 무선인터넷이 99.4%로 유선인터넷의 71.3%를 크게 앞질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연령층에서의 모바일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연령별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현황을 보면 2017년 10대 97.6%, 20대 99.8%, 30대 99.8%, 40대 99.4%, 50대 97.6%, 60대 81.2%, 70대 31.2%에 달했다. 특히 50대의 경우 2016년 94%에서 2017년 97.6%로 이용률이 3.8% 증가했으며, 60대의 경우 2016년 73%에서 81.2%로 이용률이 8.2% 증가했다.

이처럼 4060세대의 모바일 접근성 증대에 맞춰 최근에는 불교계도 모바일화가 한창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바일 사찰 홈페이지이다.

전국 교구본사 사찰을 조사한 결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6곳에 달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사찰은 조계종 종단 홈페이지를 비롯해, 월정사, 법주사,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고운사, 백양사, 화엄사, 대흥사, 관음사, 봉선사 등이었다. 이에 반해 PC 홈페이지만을 운영하는 사찰은 조계사, 용주사, 신흥사, 마곡사, 금산사, 송광사, 선운사 등 7곳에 불과했다.

단순히 모바일 기기에 맞춰 디자인된 홈페이지에서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2014년 기기에 따라 자동으로 홈페이지가 변환되는 반응형 웹을 불교계 최초로 도입한 서울 봉은사는 올해부터 기부금 영수증 신청 기능을 선보였다. 나혜진 봉은사 홍보 사무관은 "신도 이용자들이 대부분 모바일 기기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반응이 뜨겁다"고 설명했다.

2018년 불교언론문화상 뉴미디어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마음선원의 경우도 유튜브 채널과 연계한 법문, 교계 뉴스 등을 전하고 있으며, 모바일 신도 커뮤니티 'With'도 선보일 예정이다.

일부 사찰의 경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사찰 대부분은 단순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다.

장현호 쌍계사 홈페이지 담당자는 "사찰 내 홈페이지 개발이나 관리 등 역량을 지닌 인력이 부족하기에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동화사 홈페이지 담당자는 "반응형웹으로 구축했지만 행사 사진 위주로 제공하고 있다. 접속이 많지 않아 행사나 법문 위주 콘텐츠 외에 새로운 콘텐츠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대부분 모바일로
고연령 '모바일 이용' 뚜렷
모바일 기부영수 발급 등
사찰 홈페이지 변화 눈길

관계자 기능 숙지 미숙해
모바일화 역량 확대 필요

현재 종단 차원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이 2018년부터 종단 산하 신행-포교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뉴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불교IT전문업체 다나의 최대종 대표는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정보를 얻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사찰 관계자들의 트렌드에 대한 인식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방치된 홈페이지는 방문자에게 정보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사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개발과 대중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역량 강화를 고민할 때다. 종단 차원에서 불교계 모바일화에 맞춘 활용 교육도 함께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2월 18일 열린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7대 종교지도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기미독립선언서 원문이 인쇄된 벽면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文 "신계사 템플스테이, 금강산 관광 교두보"

원행 스님 참석 종교지도자 오찬서… "조계종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7대 종교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국민통합을 위한 종교계 협력을 당부했다. 남북 민간교류 및 경제협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의사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희중, 이하 KCRP) 공동회장단을 초청해 2월 18일 청와대서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은 2017년 12월에 이어 2번째로 100주년을 맞는 3.1절에 앞서 마련됐다.

이 자리서 문 대통령은 남북 종교계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이라면서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이뤄진다면 금강산 관광의 길을 먼저 여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조계종에 대한 뒷받침은 물론이고 북한 측과 협의하는 것까지도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한 지난 12일부터 13일 북한 금강산서 열린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행사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가 함께 잘 사는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정부 간 공식적인 관계가 막혀있을 때 특히 종교계는 다른 어떤 민간분야보다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수월한 측면이 있다. 상징적인 효과도 매우 높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번 초청 취지에 맞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100주년을 맞은 3.1절을 기리는 동시 타종행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감사를 표하는 한편 종교계의 국민통합 역할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기미독립선언서가 대형 인쇄된 벽면을 설치해 행사장을 꾸미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00년 전 독립운동에 앞장선 민족대표 33인은 모두 종교인이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종교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와 닿는다"면서 "선조들이 꿈꾼 나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국민과 함께 이 꿈을 꼭 이루고 국민통합의 길을 여는 데 종교지도자들께서 지혜를 나눠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후 원행 스님은 건배제의를 하며 "국가와 민족, 그리고 대통령님의 내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라고 선창했다. 참석자들은 포도주스가 담긴 잔을 들며 "통일로"라고 외쳤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김희중 대주교(천주교주교회의장),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이정희 천도교령,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김영근 성균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3.1운동 100주년 불교계 선언문 채택

종단협, 3월 1일 조계사 공동법회서 발표 예정

3.1운동 100주년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불교계가 이를 기념하는 불교계 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는 2월 21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제55차 정기총회 및 2019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1일 조계사에서 봉행할 3.1운동 100주년 기념법회서 발표할 불교계 선언문을 확정했다.

종단협이 채택한 선언문은 '3.1운동 일백주년 기념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교계 선언문'으로 정해졌다. 선언문은 "조선인이 본래 지닌 독립권과 자유권의 불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 삼일정신이다. 삼일정신은 무력이 아니라 도덕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선언했다"며 "이제 삼일정신이라는 씨앗의 과거 백년을 이어받아 미래 백년의 열매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옛것을 통해 현재를 새롭게 만드는 지혜의 수레바퀴가 되어 거듭거듭 우리들을 일깨워 줄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불교계는 불교선언을 통해 △분열과 갈등 조장하는 편가름의 언동과 행위 일체 배격 △대립에 중도와 화쟁사상으로 노력 △자비와 평화를 중요가치로 공동체 평화 노력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기여 등에 모든 국민이 나설 것을 호소한다.

이뿐만 아니라 선언문에서는 "독립이란 억눌리고 오그라들고 사그라진 양심과 위엄과 체면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며, 각 개인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며 "3.1독립선언서는 개인의 자주독립이 곧 세계인의 자주독립으로 이어지고, 나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사해(四海)의 동포들에게 주지시킨 성스러운 선언"이라고 1919년 3.1운동의 가치를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